

랜싱 공소 주보

공소 주소: 955 Alton St., East Lansing, MI 48823
본당 주소: 21177 Halsted Road Northville, MI 48167

◆ 입당송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 제1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13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4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8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9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지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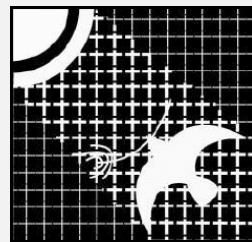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 1-45
그때에 1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2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 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3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5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6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7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9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10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11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2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의 성가

입당 121 봉헌 511 성체 197 파견 123

신앙의 신비 373 사비송 325 복음환호송 366 기록하시다 327 하느님의 어린양 328
아멘 383 주님의기도 387 주님께 나라와 권능 389

주임신부: 오승수 시몬
 공소회장: 강수성 토마스
 청년회장: 허태운 마리아
 성모회장: 설현선 레지나
 공소회계: 전정하 루시아
 반주자: 김지연 크리스티나
 복사: 강동현 사무엘/ 유현준 라파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13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14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 는 죽었다.
 15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16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17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
 나 있었다.
 18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열다섯 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
 었다.
 20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
 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21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23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24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25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26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
 을 믿느냐?”
 27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
 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28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29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30 예수님께서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러
 는 줄 알았던 것이다.

32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뵈고 그 발 앞에 엎
 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
 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
 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34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5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37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38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39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40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41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42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
 입니다.”
 43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44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
 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
 하셨다.
 45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
 라.

공지사항

- 3월 12일 미사주일 헌금: \$125
- 3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음악 피정이 있습니다. 제목은 “제 영혼이 시름으로 녹아내립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일으키소서.” 이고요. 오거스타 본당 신부님이신 김인식 대철 베드로 신부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네요.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4월 9일 부활절 미사는 공소에서 없습니다.